

### 3. 1907~1909년 순천의 의병활동과 새로운 모색

#### 1) 전남 동부지역의 의병근거지

다소 주춤하던 의병항쟁이 되살아난 시기는 1907년 후반으로, 이를 흔히 제3차 의병이라 한다. 1907년 7~8월 사이에 고종의 강제퇴위·한일신협약·군대해산 등과 같은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으며, 전라도의 경우에는 더욱 거세었다. 사실 1·2차 의병 단계에서 전라도 의병은 변변한 활동을 벌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3차 의병은 단연 전라도 의병들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가 3차 의병의 불을 당기자, 전라도 각지의 의병들이 앞뒤를 다투며 일제와 투쟁한 것이다. 3차 의병이 크게 확산됨으로써 한반도는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전국 방방곡곡의 산과 들이 모두 의병의 싸움터로 변한 것이다.

3차 의병이 활성화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해산군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의 자결을 계기로 해산군인들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지방의 의병들과 합류하였다. 원주의 진위대에 소속된 특무정교(特務正校) 민궁호(閔肯鎬) 역시 해산군인 수백 명을 이끌고 의병에 나서 강원도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부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으며, 강화 진위대의 군인들도 부교(副校) 지홍윤(池洪允)을 중심으로 의병부대를 형성하여 경기도와 황해도를 무대로 눈부신 활동을 보였다.

전라도의 경우에도 정원집(鄭元集)·추기엽(秋琪曄)·정철화(鄭哲和)와 같은 해산군인들이 유배지를 탈출하여 의병에 합류, 두각을 나타내었다. 한편, 일반 민중들은 일제의 정치·경제적 침탈의 참상을 직접 겪거나 보았던 관계로 자발적으로 의병에 참여하였으며, 의병에 가담하지 않은 주민들도 의병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3차 의병은 전투역량을 크게 강화하여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각 지방의 의병들이 힘을 합하여 서울진공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3차 의병의 중심지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단연 전라도였다. 1908~1909년 사이에 전라도에서는 대소의 의병장들이 크게 일어났다. 3차 의병을 주도한 의병장으로는 1차 의병 이후 계속 항쟁의 의지를 꺾지 않고 지켜온 의병장 기삼연·고광순 등이 있으며, 다양한 계층에서 새로운 의병장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김준(金準)·김률(金律) 형제, 김동신(金東臣), 전해산(全海山), 심남일(沈南一), 안규홍(安圭洪), 이석용(李錫庸), 문태서(文泰瑞), 임창모(林昌模), 황준성(黃俊聖), 황병학(黃炳學), 양진녀(梁振汝)·양상기(梁相基) 부자, 김원범(金元範)·김원국(金元國) 형제 등이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의병장들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전라도의 산과 강을 누비며 일제의 침략에 맞서 피어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07년 가을부터 고양되기 시작하여 이듬해 봄까지 일제의 군경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 처음에는 광주와 나주, 장성 등지에서 주로 대부대 단위로 활동하였다. 그후 일본군과 잦은 전투를 치르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동부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의병의 불길이 확산되었다. 특히, 순천을 중심으로 한 의병활동이 거세어졌다. 그것은, 순천의 조계산을 비롯하여 광양의 백운산, 구례의 지리산 등 높고 깊은 산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서 의병활동의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지리산은 일찍부터 의병의 활동무대로 널리 이름났었다. 지리산은 전남·전북·경남 지방에 걸쳐 있으므로 자연히 세 지역의 의병들이 몰려들었다. 예컨대, 1907년에 남원의 양한규와 운봉의 박봉양 의병부대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장기항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광양의병 수십 명이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으로 들어간 것도 바로 이때였다.

지리산을 본격적인 유격기지로 활용한 의병장은 고광순과 김동신 등이었다.<sup>1)</sup> 고광순은 ‘축예지계(蓄銳之計)’의 일환으로 1907년 9월에 지리산에 찾아들었다. 그는, 지리산의 피아골이 장기항전을 대비하기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피아골은 골짜기가 깊은 데다 동쪽으로 화개, 서쪽으로 구례, 북쪽으로는 문수골과 문수암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사격에 능한 포수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이에 의병장 고광순은 피아골의 연곡사에 근거지를 구축하고서 포수(砲手)를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의병으로 훈련시켜 일제의 군경에 손색 없는 전투역량을 축적할 계획이었다. 그는 ‘불원복(不遠復 : 머지않아 회복한다)’이란 세 글자를 쓴 군기를 세우고서 장기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

지리산이 점차 의병의 기지로 변하자, 일제는 1907년 10월 17일 연곡사의 고광순 의병부대를 섬멸하기 위하여 진해만의 중포소대(重砲小隊), 광주의 1개 중대, 진주의 경찰 등 압도적인 병력과 우수한 무기를 동원하였다. 의병은 이들과 치열한 접전 끝에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의병장 고광순과 부장(副將) 고제량(高濟亮) 등 약 30명이 순국하였다. 일제의 군경은 연곡사 안팎을 모두 불사르고 물러갔다. 다시는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지리산은 여전히 의병의 기지로 이용되었다. 의병장 김동신은 충남 회덕 출신으로 전남북의 접경지대에서 활동하였다.<sup>2)</sup> 그는 지리산 문수골의 문수암을 주로 이용하며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인적이 없는 곳에 산채를 지어 군량과 무기를 비축해서 영구적인 의병기지를 만들 생각이었다. 지리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의병에 투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기와 식량, 화약 등을 지원해주었다. 이에 일제는 산속 깊숙이 쳐들어와 의병진압을 구실삼아 천년고찰과 수많은 민가를 불태웠다. 당시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의 운조루(雲鳥樓)에 살고 유씨일가는, 불길이 여러 날 하늘을 뒤덮어 그 정황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한편, 조계산은 순천에서 활동하는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일제는 송광사와 선암사가 자리한 조계산에 의병의 출몰이 잦으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의병을 진압하기 어렵다고 파악할 정도였다.<sup>3)</sup> 조계산을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한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보성 출신의 안규홍, 순천 출신의 강진원과 조규하 등을 들 수 있다. 안규홍은 흔히 안담살이라 불렀는데, 전남 동부지역을 휩쓴 전설적인 의병장이었다.<sup>4)</sup>

안규홍은 처음에 자신의 동료들을 데리고 순천에서 활동 중인 강용언(姜龍彦) 의병부대에 투신하였다.<sup>5)</sup> 그가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분이 낮은 관계로 양반 유생의 의병 가담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에 그는, 순천의 조

1) 『무등일보』 1995. 9. 27·1995. 10. 11.

2) 홍영기, 『大韓帝國時代 湖南義兵 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3.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9, 1980, 213쪽.

4) 안규홍 의병에 대해서는 홍영기, 『대한제국시대 호남의병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3 ; 강길원, 『澹山 安圭洪의 抗日鬪爭』, 『孫寶基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8 참조.

5) 李一龍 역, 『靑南嶽道史』, 전남일보인서관, 137쪽.

계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강원도 출신의 해산군인인 강용언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sup>6)</sup> 선암사 뒷산인 조계산 정상 부근에는 향로암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강용언 의병부대의 근거지였다.<sup>7)</sup>

그러면 이들이 조계산에 위치한 향로암을 주요 근거지로 이용한 사실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아보자.

(1908년) 3월 28일 오전 7시 당서를 출발하여 정오에 쌍암면 선암사(당서에서 5리)에 도착하였다. 동사에서 구력(舊曆) 1월 5~6일경부터 비도를 은닉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로의 진술에 의거하여 취조한 바, 비도 10여 명이 지난 양력 2월 24일 동사의 향로암에 내박(來泊), 다음날 출발하였다가 재차 3월 15일경부터 향로암에 와서 날로 출입 ... 그들은 주지를 협박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향로암은 당시 주지가 절을 비웠는데, 본사에서 험준한 길을 올라 약 1리의 조계산 중간에 있는데, 절벽에 의지한 천연의 요새로 주위에 인공의 성벽이 둘러진 조그만 절이다. 요해처로서 한눈에 아래를 내려다 보면 2리 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산 정상에 음료수가 나오고 연료 또한 풍부하여 비도의 은거지로 가장 좋은 장소이다.(『특도에 관한 편책』 88-24, 1908, 862~864쪽)

안규홍과 강용언 등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 사찰을 그들의 근거지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이들이 선암사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향로암을 숙영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당시 강용언은 토착농민의 대표인 안규홍을 부장에 임명하였는데, 이로써 해산군인 출신의 다른 지역 의병들과 토착농민들이 연합한 의진으로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리에 어두운 강용언 의병부대는 이들의 의병활동에 크나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강용언은 주민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었다. 민간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안규홍을 중심으로 한 토착의병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독자적인 의병부대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안규홍은 순천의 조계산과 보성의 동소산·석호산, 광양의 백운산 등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순천·보성·광양 등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에서 돋보이는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의병장 강진원(姜振遠 : 1878~1921)은 순천시 서면 출신으로 일찍이 향리에서 서당의 훈장을 지내다가 의병을 일으켰다.<sup>8)</sup> 그 역시 같은 고향의 동지인 김명거(金明巨)·김화삼(金化三)·권덕윤(權德允)·김병학(金柄學) 등과 함께 조계산에서 창의를하였다. 순천 출신의 의병장 조규하(趙圭夏)도 순천을 무대로 활동하였으므로 조계산을 근거지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조계산은 순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부대의 주요 기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광양 출신의 의병장 황순모(黃珣模)와 황병학(黃炳學)은 백운산을 근거지로 하여 반일투쟁에 전념하였다. 이들은 백운산의 지형을 잘 아는 데다 주민들의 후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홍의 경우에도 보성과 순천에서 활동하다가 근거지가 노출되자, 백운산으로 옮겨 활동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전남 동부지역에 위치한 지리산·조계산·백운산 등은 의병의 주요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6) 홍영기, 앞의 논문, 134~135쪽.

7) 『특도에 관한 편책』(정부기록보존소 소장, 문서번호 88-24, 1908), 862~865쪽.

8) 『姜振遠 義兵將 略傳』, 햇불사, 1981, 30·40·60·70쪽.